



“꼭 필요하다”

김인식 감독 WBC 명단 28명 발표

“꼭 나가겠다”

오승환 해외원정도박 논란 딛고 포함…추신수는 불투명

김인식(70)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 대표팀 감독이 고심 끝에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을 WBC 최종엔트리에 포함하기로 했다. 반면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는 소속 구단이 “WBC 출전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전해왔다.

김 감독은 11일 서울시 리베라 호텔에서 선동열, 이순철 송진우, 김동수, 김광수, 김평호 코치와 코칭스태프 회의를 열고 “오승환은 꼭 필요한 선수다. 대표팀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발 요원 양현종(KIA 타이거즈)이 몸 상태가 괜찮다고 하고, 대회에 맞춰 구위를 끌어 올린다고 한다”며 “양현종 발탁이 어려우면 (수술을 받은) 선발

요원 김광현 대체 선수로 선발 투수를 뽑으려고 했는데 마무리 오승환을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운드에 공백이 큰 대표팀에 미국 메이저리그가 인정하는 마무리 투수 오승환은 전력상 꼭 필요한 선수다. 그러나 해외 원정도박 파문으로 지난해 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KBO로부터 ‘한국에 복귀하면 해당 시즌 정규시즌의 50%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오승환의 WBC 출전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다.

오승환은 6일 개인 훈련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일단 훈련은 열심히 하겠다”며 대표팀 발탁 문제에는 말을 아꼈다.

김 감독은 “오승환이 출국하기 전 나와 통화를 하며 ‘WBC 대표팀에 뽑히면 구

단에 대표팀에 합류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며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오승환이 WBC에서 나라를 위해 뛰며 만회하려는 마음이 강하다”고 전했다.

다른 메이저리그의 WBC 대표팀 합류는 불투명하다.

소속팀의 출전 반대로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는 11일 출전을 고사했다. KBO는 김현수를 대신할 대표선수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28인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 가운데 또 다른 메이저리그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4차례 부상자명단(DL)을 드나들었던 추신수는 소속팀 텍사스의 요청으로 MLB 부상방지위원회에서 출전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양현종 “재활은 의사소통 오해…나라 대표해 던질 것”

“송진우 (WBC 대표팀) 코치님이 전화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양현종(29·KIA 타이거즈)은 지난들로부터 ‘몸 괜찮으냐’라는 연락을 받으면서 한 해를 시작했다. 4일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코칭스태프 회의를 마치고 김인식(70) 대표팀 감독이 “트레이너 말로는 양현종이 어깨 재활 중이라고 한다. 좀 더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양현종은 3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WBC 대표팀 28명 엔트리에 최종 승선했다. 선발투수 부족에 시달리는 WBC 대표팀은 양현종까지 부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한껏 긴장했다.

하지만 양현종은 11일 진행된 대표팀 예비 소집에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나온 이야기다. 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시즌이 끝난 뒤 운동하는 걸 나는 ‘재활한다’고 말한다. (보통은 부상 선수가 몸 상태를 회복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대표팀에서 오해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저런 단어를 쓰는 데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평년과 몸 상태는 특별히 다를 건 없다. (김인식) 감독님께도 (출전한다고) 말씀드렸고, 농담으로 서로 오해를 풀었다”고 덧붙였다.

시즌이 끝난 뒤 순조롭게 컨디션을 관리한 양현종은 최근 투구를 시작했다. 평

소에는 2월 중순부터 공을 던지는데, WBC 대표팀 일정에 맞춰 1개월가량 일정을 앞당겼다.

지난 시즌에는 데뷔 후 가장 많은 200.1이닝을 투구해 컨디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양현종은 “구단에서 배려해준 덕분에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며 잘 쉬었다. 만약 시즌 중 체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충분히 배려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대 대표팀은 여러 선수가 빠지면서 최상의 전력을 꾸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현종은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다. 최선을 다해,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 던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얼굴 어디갔지? 10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에어 캐나다 센터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토론토 랩터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에서 보스턴의 요나스 예레브크(왼쪽)가 상대 더마 드로잔(가운데)의 파울로 공을 놓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선 토론토가 보스턴에 114-106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4라포바’ 샤라포바, 4월 포르세 그랑프리로 복귀

‘러시아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30·러시아)가 오는 4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포르세 그랑프리 통해 코트에 돌아온다. 샤라포바의 후원사인 포르세는 지난 10월 “이 대회 본선 와일드카드를 샤라포바에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포르세 그랑프리는 총상금 71만900달러가

결린 대회로 4월 24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다.

샤라포바는 지난해 1월 호주오픈에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와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원래는 2년간 자격이 정지될 예정이었으나 샤라포바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해 징계 기간이 15개월로

줄었다. 이에 따라 샤라포바는 올해 4월 26일부터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있으며 징계가 만료된 첫날인 4월 26일에 본선 1회전 경기를 치를 전망이다.

포르세 그랑프리에서 2012년부터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기도 한 샤라포바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회에서 복귀전을 치르게 돼 매우 행복하다”며 “빨리 팬들

을 만나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테니스 코트에도 다시 서고 싶다”고 복귀전 일정이 확정된 소감을 밝혔다.

최근 1년간 성적을 토대로 매겨지는 세계 랭킹에서 현재 샤라포바는 제외된 상태기 때문에 투어급 대회에 출전하려면 주최 측이 부여하는 와일드카드를 받아야 한다.

샤라포바는 5월 프랑스오픈을 통해 메이저 대회에도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브렛 필 ‘빅리그 호랑이’ 될까

디트로이트와 마이너 계약

‘호랑이 군단’과 작별을 한 브렛 필(33) ‘미국 호랑이’로 빅리그 도전에 나선다.

미국 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11일 브렛 필을 포함한 22명의 선수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후안 페레스 등과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 초청 선수로 계약을 한 필은 2월 캠프를 통해 빅리그 재진입을 노리게 된다.

2006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프로에 데뷔한 필은 2011년 처음 빅리그를 밟은 뒤 111경기에서 타율 0.233(240타수 56안타), 9홈런, 32타점을 기록했다.

KIA에서의 첫 해였던 2014년 0.309의 타율과 함께 19홈런 66타점을 기록한 필은 2015년에는 타율 0.325, 22홈런, 101타점의 성적을 냈다. 지난 시즌에도 0.313의



타율과 20홈런 86타점으로 3년 연속 3할 타율을 달성했다.

그는 성실함과 뛰어난 진화력으로 선수단 내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1루수라는

포지션에 비해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올 시즌 KIA와의 재계약에 실패했다. KIA는 필을 대신해 외야수 로저 버나디나를 선택했다.

한편 이날 디트로이트가 발표한 마이너리그 계약 선수 명단에는 2011년 KIA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좌완 트레비스 브래클리의 이름도 포함됐다.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한 외야수 짐 아두치,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 오른손 투수 콜린 벨레스터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

KIA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참관단 모집

내달 14~17일 일정

KIA 타이거즈가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참관단’을 모집한다.

이번 스프링 캠프 투어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훈련 중인 선수단을 응원하고 연습경기를 관람하는 여행상품으로 내달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성인 121만원, 아동(2005년 2월생 이후)은 110만원이다.

이번 참관 프로그램은 주니치 드래곤즈(15일·차탄구장), 니혼햄 파이터스와(16일·나고구장)의 연습경기 관람과 오키나와 관광, 선수단과의 식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내 아나운서 ‘MC이슈’가 참관단과 동행해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관단에는 스프링캠프 모자와 티셔츠가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더불어 올 시즌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경기 중 1경기의 스카이 박스 관람 혜택(참관단 본인 한정)도 주어진다.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참관단 모집은 12일 오전 11시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대행사(하나투어 1522-4546)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이번 행사는 신청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BO 2017 탁상달력 출시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017 탁상용 달력을 출시했다.

달력에는 2017 KBO 정규시즌 720경기 일정과 올스타전 등 KBO 리그 주요 일정이 담겨 있으며, 월요일에 경기가 없는 것을 감안해 월요일부터 일요일 순으로 요일 표기를 했다.

또 각 구단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이미지가 수록됐다.

1월 2016 KBO 한국시리즈 MVP 양의지(두산)를 시작으로 2월 박석민(NC), 3월 신재영(넥센), 4월 류제국(LG), 5월 이범

호(KIA), 6월 최정(SK), 7월 김태균(한화), 8월 강민호(롯데), 9월 이승엽(삼성), 10월은 박경수(KT)가 장식했다. 11월은 지난 시즌 MVP인 니퍼트(두산), 12월은 골든글러브 수상자의 단체 사진으로 제작됐다.

가격은 만원(배송료 별도)이며 선착순 한정 수량으로 위팬 홈페이지(www.wefan.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위팬(1588-7362)으로 하면 된다.

한편, KBO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kbo1982)에서는 탁상용 달력 출시를 맞아 ‘2017 WBC 쿼츠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